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방법

작성자 : Vic Coleman

소개

최근에 개인 연구를 하는 동안, 특정한 주제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2주가 넘는 기간 동안 CD에 담긴 시편,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읽고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화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그리고 당황스럽게도) 나는 그런 일을 꽤 자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죄"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 쉬워 보였다.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결국 주님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 이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종종 두 걸음 뒤로 물러나는 활동에 참여하여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구를 무효화합니다.

이 과는 너무나 쉽게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그러한 활동들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과에서 사용된 성구들

시편 78:9 – 22

출애굽기 16:1 – 8

시편 95:7 – 11

마태복음 16:1 – 12

마태복음 10:1

과거를 잊다

시편 78편의 한 구절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데 대한 몇 가지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에브라임이라고 불림)의 죄에 대한 요약을 제공합니다. 시편 78:9-11을 읽으십시오. 우리는 세 가지를 듣습니다.

일. 그들은 하나님의 계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그들은 그분의 율법에 따라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삼. 그들은 그분이 그들을 위해 하신 일을 잊어버렸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끊임없이 보여주는 "결점"에 대해 말합니다.

일.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살지 않으며,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지만, 그분의 주권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낮 동안 지도를 구하거나 지혜를 구하기 위해 멈추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불행히도, 우리가 낮에 하나님에 대해 처음 생각하는 것은 저녁 식사를 위해 자리에 앉았을 때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단지 어린 시절에 형성된 습관 때문이지,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자 하는 진심 어린 소망 때문이 아닙니다.

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원칙에 따라 살기를 거부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이 우리 삶에서 첫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일을 합니다. 때로 우리는 "흘러가는 대로 가고" 조금씩 주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어떤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룹의 일원이 되기 위해 따라다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고 "이것이 경건한 행위인가?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삼.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립니다. 현재의 위기가 끝나고 압력이 가라앉자마자 "기억 상실"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평화"의 시간을 경험하고 나서 다음 시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의 실체는 안개와 같지만 실체는

없습니다. 현재 재판에 대해 격려할 만큼 관련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전 시련에서 받은 신앙의 기초를 다음 시련으로 이어가지 못합니다.

마지막 항목은 내가 가장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입니다. . . 나는 과거를 잊는다. 주님께서 시련을 통해 나를 구원하실 때 감사하지만, 다음 시련이 닥칠 때쯤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을지, 구원하실지 모르는 것처럼 "간청하고 간청"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분을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78:12-16절을 읽어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들의 목록을 받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잠시 시간을 내어 간단한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들이 중요했는가? 그 질문들이 당신 자신의 삶이나 당신 주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여러분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얼마나 자주 상기합니까? 왜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을 잊어버리는 걸까요?
왜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께 죄를 짓는 것일까요?

다음으로 시편 78:17-22을 읽으십시오. 18절은 "그들이 고의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NIV). KJV는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니..."라고 표현합니다. "시험받다"(NIV에서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시험하다 또는 증명하다를 의미하는 "nacah"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갈망하는 음식을 요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증명하시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6:1-8절의 배경을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의 대목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스라엘의 큰 불평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것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의 태도(불신)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훌륭하게 구해 내신 후, 그들은 그분이 그들에게 음식을 공급해 주실 수 있을지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의 기적들로 발전된 "믿음의 기초"를 다음 시련, 즉 배고픔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얻기 위해 주님(매일 불기둥이나 구름기둥 가운데 눈에 보이게 임재하셨음)을 찾고, 그분이 과거에 그들을 위해 하신 일로 인해 자신감을 느끼는 대신,

이 현 상황에서 그들을 도우실 수 있는 그분의 의지와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이것이 그분을 화나게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서 모세가 말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의 원망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시편 78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20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의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몇 번이나 대단히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당신은 그분이 다음 시련에서 당신을 도우실지 의심합니다. 21-22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심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분이 화를 내셨을 뿐만 아니라 *왜* 화를 내셨는지도 듣습니다.

이스라엘이 나타낸 태도는 성경 전체에 여러 번 언급될 정도로 하느님께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편 95:7-11이 그 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 하나님은 *왜* 화를 내신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여러 해 동안 자녀를 부양해 온 사랑 많은 부모라고 가정할 때, 자녀가 당신을 의심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부모로서 당신에게 가장 상처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의 능력에 대한 불신, 당신의 사랑에 대한 불신, 당신의 의도에 대한 불신, 또는 당신의 성격에 대한 불신은 무엇인가? *왜?* 무엇이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한다고 생각하는가?

변하지 않는 것들

믿음의 부족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여주는 신약의 예는 마태복음 16:1-12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의 첫 부분에서 예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가 기적을 행하게 함으로써 그분을 "시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이미 몇 가지 기적을 목격하거나 들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단지 그분이 "실수"하게 하고 그분의 인기와 영향력을 약화시키기를 원했습니다.

5절은 제자들이 이 여행에서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고 말합니다. 6절에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경계하라고 경고하시며, 방금 일어난 만남을 언급하십니다. 7절에는 제자들이 예수가 먹기 위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나와 있다.

그들의 대화에 대한 예수의 반응은 매우 분명했습니다(8-11절). 처음에 "당신들 모두 나를 오해하셨어요. 나는 음식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믿음이 적은 자여..."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이 그들의 믿음에 대한 비판이었을까요? 그 답은 마태복음 14장과 15장에 있는데, 제자들은 최근에 예수가 기적적으로 9,000명을 먹이시도록 도왔습니다. 예수에게는 음식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토론의 주제가 되어서도 안 되었다.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필요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수준이어야 했습니다 – 예수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한 예수의 경고의 의미를 더 깊이 살펴보았어야 했다.

8-11절을 읽으면서 제자들, 특히 11절에 대한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9000명을 먹이는 일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악령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는 권세와 짹을 지어 나가기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10:1). 따라서 그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을 감안할 때, 그들은 잊어버린 빵에 대해 걱정할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부족이 예수를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떡에 대해 염려했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점이 걱정되시나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개인적으로 하신 일을 알고 있다면,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그런가요?

요약

이 단원의 요점은 매우 간단하고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실 때, 그 경험을 당신의 삶에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을 그분을 믿는 신앙을 더욱 키우기 위한 기초로 활용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분이 당신을 위해 하시는 일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여러분과 그분과의 관계의 기초입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신뢰를 받지 못할 때, 그 상처는 자녀의 마음을 깊이 파고든다. 부모가 몇 번이고 자신을 "증명"한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화를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제자들 때문에 좌절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좌절하시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24시간 이내에 다음 작업을 수행할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 종이 한장을 가져다가 반으로 접습니다.
- 왼쪽에는 지난 12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하신 모든 일의 목록을 만드십시오.
- 오른쪽에서 현재 우려 사항의 목록을 만드십시오.
- 종이의 왼쪽을 오른쪽을 위한 믿음의 기초로 사용하겠다는 결정을 내린다.
- 30일 동안 매일 목록을 검토하십시오.
- (매일) 기도할 때, 왼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 감사하고, 오른쪽에서는 문제들을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잠시 후 당신은 그를 화나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뻐할 이유만이 있을 뿐이다.